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운영방안

(※ 1매 이내로 작성)

<혁신으로 진격하는 부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부산 총선 패배,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2022년 대통령 선거 패배, 2022년 부산 지방선거 패배, 영남 부산에서 패배한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부산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걸어 가고, 부산민주당이 낡고 관습적인 길로 갈 때, 침묵했던 정치 문화를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결과를 만든 잘못된 원인이 발생할 때 부산 민주당은 고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 민주당 후예들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는 부산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혁신의 대전제로 민주당 부산시당 기본 시스템을 민주적 원리에 입각하여 재편성할 것입니다.

혁신의 출발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앙당이 시도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되어야 하듯이,

"민주당 부산시당은 18개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8개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부산시당 부문별 상설위원회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에서 출발하여 민주당 부산시당을 혁신하겠습니다.

- (1) 부산시당 자원봉사센터 설치 : 당원과 시민단체, 지역단체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활동 전개
- (2) 오륙도연구소의 실질화 : 구·군의원의 정책적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당원들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부소장은 민주당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중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중앙당과 협의하여 민주연구원 부산지부 성격을 부여해서라도 연구운영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3) 부산시당 을지로위원회 : 사회적 약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4) 지역위원회 일상활동 지원강화
- (5) 부산생활정치위원회 제안
- (6) 청년 당원 30% 목표 : 전체 부산 당원 중 2030비중을 30%로 목표설정. 부산청년연설&토론회 등을 통하여 청년인재를 양성
- (7) 2024년 총선에서 부산 민주당 과반의석을 목표로 철저한 시당혁신과 과학적인 선거준비를 하겠습니다.
- (8) 시당사무처의 역할을 완전히 재조정-지역위원회와 권리당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당무가 될 것입니다.

당원과 시민의 전화 한통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것부터 민주당 부산시당의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